

<要約>

I. 국내의 경제 전망

- (세계 경제) 9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4~3.3% 내외, 97년은 이보다 다소 높은 3.2~3.9% 내외로 전망됨
 - 지역별로는 선진국 및 구소련·동구권의 경제가 회복되는 반면 아시아 신흥 개도국의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 (국제 금리·환율·원유가) 97년 국제 금리는 상승세, 달러화는 강세 둔화, 원유가는 안정될 전망이다
 - 국제 금리는 미국과 일본의 경기 회복세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고, 달러화는 며칠간 금리 격차 축소, 엔저로 인한 일본 경상수지 흑자의 재확대 등으로 강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은 안정적인 물량 공급으로 하향 안정될 전망이다
- (국내 경제) 97년 국내 경제는 96년의 6.9%보다 낮은 6.7%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수입 증가세의 약화가 예상되나 수출 회복의 미흡과 무역외수지 적자의 증가세의 지속으로 96년의 183억 달러보다 소폭 감소된 170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 소비자 물가는 국제 곡물가 안정에 힘입어 4.5%로 안정되고, 금리도 경기 둔화에 따른 자금 수요의 축소로 연말 11%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은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나 달러 강세 약화와 외자 유입의 확대로 97년말에는 96년말의 815~820원보다 소폭 절상된 812~815원이 될 전망이다

II. 산업별 전망

- (개관) 산업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나 97년 내수는 경기 하강에 따라 여전히 좋지 않을 것이며 수출은 재고조정과 해외 시장의 호전에 따라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 내수 시장 전망

- 1996년

-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은,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95년의 성장세에 크게 미치지 못했음. 특히 조선 수주는 96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전망

- 자동차 경기의 위축 요인은 국내 경기 침체이며, 수주 위축(조선)은 엔저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임

- 1997년

- 석유화학과 조선의 경우 96년에 비해 다소 높아질 것이고 건설은 예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철강, 반도체, 공작기계는 성장세가 둔화될 것임
- 부정 요인은 경기 침체이며, 긍정 요인은 경기 부양책(건설)과 해외 수주 여건(조선)의 호전임

○ 수출 시장 전망

- 1996년

- 철강과 조선의 경우 수출 성장세가 95년에 비해 높아졌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산업은 성장세가 둔화되었음. 특히 반도체는 매우 급격한 하락세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 긍정 요인은 내수 부진에 따른 수출 물량 여력의 발생(철강)과 기확보된 수주 물량에 따른 수출 물량 확대(조선) 등임

- 부정 요인은 엔저에 따른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 하락(공작기계·자동차), 산업 경기 위축에 따른 수출 가격 하락(반도체·석유화학) 등임

- 1997년

- 유화, 철강, 반도체의 경우는 다소 상승할 것이나 공작기계, 자동차, 조선의 경우는 하락세를 보일 전망

- 긍정 요인은 채고 조정, 신수요의 등장, 신제품 출시와 공급 물량 조정 등에 따른 국제 시장의 회복임

- 하락 요인은 해외 시장 개척의 한계, 수주 물량 감소 등임

I. 國內外 經濟 展望

1. 海外 經濟

(1) 經濟 成長 및 世界 交易

세계 경제 성장률은 96년 2.4~3.3%, 97년 3.2~3.9%

○ (세계 경제 성장) 96년 세계 성장률은 2.4~3.3% 내외, 97년은 이보다 다소 높은 3.2~3.9% 내외로 전망

○ (지역별 성장) 지역별로는 선진국 및 구소련·동구권의 경제가 회복되는 반면 아시아 신흥개도국의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97년 미국 경제는 연착륙 후 경기 상승 국면으로 재진입하여 내수 부문의 증가에 힘입어 2% 이상의 성장 예상

- (일본) 97년 일본 경제는 상대적 저금리, 엔저 효과의 가시화 등으로 2~3%대의 건실한 성장 전망

- (EU) 독일을 중심으로 한 EU는 저금리와 마르크화의 평가 절하에 힘입어 97년에는 성장률이 2%대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96년과 97년중 중국 경제는 긴축 정책에 의해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나, 8~9%대는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아시아 신흥국) 대부분 국가가 연착륙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97년에도 6~7%대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됨

- (중남미) 95년에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경험한 중남미 국가들은 97년에 4%대 이상의 성장이 전망됨

- (구소련·동구) 동구 경제는 97년에 성장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경제는 97년에 4%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세계 교역 증가율은
소폭 증가될 전망

○ (세계 교역 증가율) 세계 교역 증가율은 97년에
소폭 증가될 전망이다

- 선진국중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개도국중에서는
중남미를 중심으로 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세계 경제 실질 성장률 및 교역 증가율>

(%)

	1993	1994	1995	1996		1997	
				DRI	WEFA	DRI	WEFA
세계 경제 성장률	1.8	2.9	2.8	2.4	3.3	3.2	3.9
선진국	0.8	2.7	2.1	1.8	2.2	2.6	2.4
미국	2.2	3.5	2.0	1.7	2.2	2.0	2.4
일본	0.1	0.5	0.8	2.5	3.8	3.5	2.2
EU	-0.6	2.9	2.5	1.5	1.5	2.6	2.5
독일	-1.2	3.0	2.1	0.6	0.8	2.5	2.1
아시아신흥국	6.5	7.7	7.7	6.6	7.2	6.0	7.1
중국	13.4	11.8	10.2	8.9	9.3	8.6	9.4
중남미	3.5	5.1	0.4	3.2	3.0	4.6	4.9
구소련·동구	-9.3	-12.8	-4.0	-	0.3	-	4.2
세계 교역 증가율	4.6	9.5	9.3	6.4	4.7	7.6	6.8

자료 : DRI, *World Markets Executive Overview*, 1996년 2/4분기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6. 8

주 : 전세계 교역 증가율은 실질 수출(물량 기준) 증가율임

(2) 國際 金利 · 換率 · 油價

97년 국제 금리
상승, 달러 강세
둔화, 원유가 안정
예상

- 97년 국제 금리 상승, 달러 강세 둔화, 원유가 안정
 - (국제 금리) 97년에 미국과 일본의 경기 회복세로 국제 금리는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국제 환율) 97년 엔/달러 환율에 대한 전망은 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달러당 104엔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됨
 - 97년에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재확대될 것으로 보는 DRI는 달러화 약세(엔화 강세)를 전망
 - WEFA는 96~97년에 일본 경상수지 흑자의 대폭적인 감소로 달러화의 지속적인 강세(엔화 약세)를 전망
 - 일반적으로 97년말경에는 미일간 금리 격차 축소, 엔저 영향의 가시화로 인한 일본 경상수지 흑자의 재확대 등으로 달러화의 소폭 약세가 전망되고 있음
 - (원자재가) 97년의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은 안정적인 공급으로 하향 안정될 전망이다

<국제 금리 · 환율 · 유가 전망>

(기간 평균 기준)

		전망기관	1994	1995	1996	1997
금리	유리 달러(%)	NIESR	6.50	5.63	5.40	6.20
	유리 엔(%)		2.44	0.48	0.70	1.50
환율	엔/달러	WEFA	102.2	94.1	107.2	110.5
		DRI			106.0	103.0
	마르크/달러	WEFA	1.62	1.43	1.52	1.60
		DRI			1.48	1.49
원자재	원유(달러/배럴)	DRI	15.3	16.8	16.2	15.6
	비석유원자재(%)		12.4	8.5	-2.7	-1.3

자료: NIESR,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1996. 5
 DRI, World Markets Executive Overview, 96년 2/4분기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6. 8

2. 國內 經濟

97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96년의
6.9%보다 낮은
6.7% 예상

○ 97년 국내 경제는 96년의 6.9%보다 낮은 6.7%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투자) 경기 하강 지속과 재고 조정 등 경제 여건
의 불투명으로 투자 증가세 약화 지속

- (소비) 경기 하강과 자산 시장 경기의 부진에 의해
민간 소비 증가세는 약화될 전망이다

경상수지 적자 규
모는 다소 축소된
170억 달러

- (경상수지) 97년에 수입 증가세의 약화가 예상되나
수출 회복의 미흡과 무역외 수지 적자의 증가세 지
속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96년의 183억 달러보다 소
폭 개선된 170억 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다

· 수출은 세계 경기 회복과 엔저 현상의 약화 전망
에 의해 증가세가 소폭 회복

· 수입은 경기 둔화 지속에 의해 증가세가 약화

· 무역외수지는 대외개방 확대에 의해 대외 활동이 증가
함에 따라 큰 폭의 적자 수준 유지 전망

소비자 물가 · 금
리 안정, 원/달러
환율 절상 예상

- (소비자 물가) 97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곡물가의 안정등에 힘입어 96년의 4.9%보다 낮은
4.5%로 전망됨

- (회사채 수익률) 97년의 회사채 수익률은 경기 둔
화에 의해 자금 수요가 축소되고 국내외 금리차 축
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연말에는 11%로 하락
할 전망

- (원화 환율) 97년의 원화 환율은 경상수지 적자가
크게 개선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둔화
와 대외 개방 확대에 의한 외국 자본 유입 증대로

연말에 812~815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주요 경제 지표 전망>

(%, 억 달러)

	1995년	1996년			1997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내총생산	9.0	7.3	6.6	6.9	6.7
민간소비	7.9	7.3	6.8	7.0	6.8
총고정 자본 형성	12.4	5.7	5.9	5.8	5.7
설비투자	15.9	3.8	4.5	4.2	4.0
경상수지	-88.2	-92.9	-90	-183	-170
수출입차	-101	-77	-93	-170	-162
수출 (통관기준,%)	1,250(30.3)	651(11.8)	685(2.5)	1,336(6.9)	1,446(8.2)
수입 (통관기준,%)	1,351(32.0)	728(11.5)	778(11.3)	1,506(11.5)	1,608(6.8)
소비자물가(전년말비)	4.7	3.8	4.9	4.9	4.5
회사채수익률(기말)	11.9	11.7	12.2	12.2	11.0
원/달러(기말)	774.7	810.6	815~820	815~820	812~815
엔/달러(기말)	102.7	109.8	106.0	106.0	104.0

II. 産業別 展望

1. 鐵鋼

1996년 동향과 전망

96년 상반기중 철강 산업의 내수는 호조, 수출은 저조

- 1996년 상반기 내수는 호조세를 나타낸 반면, 수출은 저조했음
- 내수는 상반기에는 SOC 투자 확대와 자동차, 조선 등 철강 수요 산업의 호조로 증가세를 유지. 지난해 경기 호황에 따른 가수요 증대도 상반기 내수 확장의 요인이었음
- 수출은 내수 우선 공급, 그리고 중국 및 동남아 지역의 수요 감소와 국제 철강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전년 상반기보다 1.6% 정도 감소했음

96년 하반기의 철강 산업의 내수는 둔화되겠지만 수출은 증가세로 반전 예상

- 1996년 철강 내수는 1995년 대비 7.6%로 성장이 상당히 둔화되지만, 수출은 1995년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 하반기에 철강 수요 산업의 경기 부진이 지속되어 철강재 국내 수요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임
- 해외 수요는 정채 내지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거나, 설비 확충에 따른 공급 능력 증대와 내수의 부진으로 상반기에 비해 수출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1997년 전망

97년도에도 내수가 둔화되겠으나 수출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 1997년은 내수 둔화와 수출 증가는 지속될 전망
- 1997년에는 경기 위축에 따라 철강 내수의 증가율이 낮아져 1996년 대비 6.2%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수출은 수출 여건이 1996년보다 다소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1996년에 비해 5.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선진국의 철강재 재고 조정과 경기의 회복세로 전세계 철강 수요가 1996년 1% 내외의 미미한 증가에서 1997년에 3% 증가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전기로 증설에 따라 저급강은 공급 과잉으로 밀어내기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에 고로 생산에 의한 고급강 부족 현상은 지속되어 수출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임

(단위: 천 톤)

	1995	1996(e)		1997(e)	
			증감률(%)		증감률(%)
내 수	37,306	40,141	7.6	42,630	6.2
수 출	9,556	9,919	3.8	10,422	5.1
생 산	36,772	39,714	8.0	43,169	8.7
수 입	10,090	10,346	2.5	9,883	-4.5

주: 96년 및 97년 전망치(e)는 본 연구원이 작성한 것임

2. 石油化學

1996년 동향과 전망

96년 상반기 석유화학 산업은 수출 및 내수 부진 현상 노정

하반기에도 내수와 수출 부진 지속 예상

- 상반기 석유화학 산업 경기는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약세를 보였음
- 1996년은 작년의 호황 경기에 따른 조정 효과, 對엔화 환율 절상 효과, 수입 개방 효과가 가시화되었음. 또한 국내 경기 부진에 따른 영향과 함께 고비용-저효율 생산 환경을 반영하여 유화 제품 가공 업체들의 해외 이탈 효과가 내수 시장에 나타나면서 해외 시장도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위축되었음
- 하반기에도 부진이 계속되어 내수는 1995년 대비 3.2% 증가, 수출은 13.8%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수출의 경우 하반기부터 재고 부족에 따른 중국

의 수입 수요 확대와 동남아 및 남미 국가들의 공장 트러블에 따른 공급 애로 등으로 다소 개선될 것임

1997년 전망

97년 석유화학 산업은 내수와 수출이 소폭 회복될 전망이다

- 1997년은 석유화학 산업 경기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이 되면서 1996년보다는 호전될 것으로 보이나 호전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1997년 수출 경기는 상반기에 강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약세로 전환되어 96년에 비해 15.0%가 증가된 404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내수도 국내 경기의 부진을 반영하여 1996년 대비 3.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무엇보다도 석유화학 산업 경기를 좌우하는 국내 경기 및 세계 경제의 향방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임
- 내수 측면에서는 생산 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유화 가공 업체들의 해외 이전이 지속됨
- 수출 측면에서는 중국 수입 업자들의 농간,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화될 동남아 국가들의 신설 설비 가동 등이 예상됨

(단위: 천 톤)

	1995	1996(e)		1997(e)	
			증감률(%)		증감률(%)
내 수	7,211	7,440	3.2	7,730	3.9
수 출	3,089	3,514	13.8	4,040	15.0
생 산	9,064	9,632	6.3	10,393	7.9
수 입	1,236	1,320	6.8	1,377	4.3

주: 96년 및 97년 전망치(e)는 본 연구원이 작성한 것임

3. 半導體

1996년 동향과 전망

96년 2/4분기부터
반도체 수출 급감

- 상반기 반도체 총수출은 1995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한 103억 달러에 그침
 - 가격 하락이 크지 않았던 1/4분기에 61.4억 달러로 57.1% 증가했으나 2/4분기에는 41.7억 달러로 17.2% 감소해 상반기 전체로는 15.2% 증가함
- 메모리 반도체의 주력 제품인 16M D램은 국제 현물시장에서 12 달러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음
 - D램 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 인하 압력으로 인해 PC와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S램 가격도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남
- 반도체 가격이 상반기 중에 이미 손익 분기점 수준까지 하락하여 한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업계의 공급물량 조정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현재 가격 하락의 근본 원인은 수요 부진보다는 공급 물량 과다에 기인하고 있음
 - 세계 PC시장은 1996년 3/4분기에도 19% 대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음
- 또한 계절적으로 PC 수요가 증가하는 하반기에 주요 PC업체들이 증설 라인을 가동할 것으로 보여 16MD램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일 것이나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임

96년 하반기에도
수출 회복 기대난

1997년 전망

97년중 반도체 수출 7.3%로 증가 예상

- 1997년에는 반도체 관련 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힘입어 수출도 약 7.3%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PC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가전, 자동차 등의 반도체 장착률 증대로 인한 반도체 수요 증가 요인이

있으나, 업체들의 공급 물량 조정이 가장 큰 변수임

- 16M D램 가격의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16M D램의 증산보다는 64M D램으로의 이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임
 - NEC, 도시바 등 일본의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64M D램 생산을 시작하고 있음
- 그러나 이번 하강 국면을 거치면서 일본과 대만의 일부 경쟁업체들이 퇴출할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으로는 우리 업체들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음
 - 메모리에 강점을 지닌 우리 업체들은 시장 지배력 유지를 위해 메모리 부문에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음

	1995	1996(e)		1997(e)	
			증감률(%)		증감률(%)
내수(억 원)	89,691	103,234	15.1	113,557	10.0
수출(억 달러)	221.1	213.5	-3.4	229.1	7.3
생산(억 원)	192,133	197,896	3.0	214,717	8.5
수입(억 달러)	90.7	103.9	14.6	116.8	12.4

주: 96년 및 97년 전망치(e)는 본 연구원이 작성한 것임

4. 工作機械

1996년 동향과 전망

96년 상반기중 공작기계는 내수 위축, 수출 신장

- 1996년도 상반기는 내수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은 1996년 연평균 성장률을 상회한 신장세(89%)를 보였음
 - 경기 둔화에 따라 설비 투자가 1995년 4/4분기부터 급격히 위축되었으며(1995년 4/4분기에 1.5%였음. 그러나 연간으로는 15.9%였음), 1996년에도 4.2%의 증가율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수는 1995년 수준(30.2%)을 크게 밑도는 8.2% 신장에

그칠 전망이다

- 수출은, 엔低에 힘입어 5월말 이래로 일본 업체들이 연이어 제품 가격을 인하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둔화될 것으로 보임. 즉 엔저 효과가 올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1997년 전망

97년중 공작기계 산업은 내수와 수출의 둔화가 예상

- 내수는 1996년 수준의 신장세를 보일 전망이나 수출 여건은 1996년보다 좋지 않을 전망이다
- 1997년도 설비 투자 증가율이 1996년보다 약간 밑도는 4.0%의 신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수는 4.8%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 내수 위축에 따라 국내 업체들은 수출에 진력을 계속할 것이지만, 수출 다변화의 여력이 소진되고 있고, 100엔대 이상의 엔低가 계속되는 한, 우리나라의 주력 제품인 NC 선반과 MC가 일본 제품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출 신장세는 다소 주춤해질 전망이다

	1995	1996(e)		1997(e)	
			증감률(%)		증감률(%)
내수(억 원)	18,772	20,320	8.2	21,305	4.8
수출(억 달러)	3.6	5.5	52.8	7.0	27.3
생산(억 원)	8,988	10,340	15.0	11,805	14.2
수입(억 달러)	16.4	17.7	7.9	18.7	5.5

주: 1) ₩/\$ 적용 환율(말): 1995년도는 774.7원, 1996년도는 818원, 1997년도는 812원임
 2) 수출입은 MTI 분류에 따른 것임
 3) 96년 및 97년 전망치(e)는 본 연구원이 작성한 것임

5. 自動車

1996년 동향과 전망

96년 자동차 산업은 내수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 21.5% 증가 예상

- 상반기중 내수는 6.6%, 수출은 12% 증가한 것으로 추정
 - 내수는 경승용차 우대 정책으로 판매 정체기의 수요 부진을 만회
 - 수출은 북미 및 남미 지역으로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동구권과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로 성장 지속
- 1996년 국내 자동차 산업은 내수가 1995년 대비 4.1%, 수출이 21.5%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 내수는 승용차의 경우 경승용차의 수요 증가로 소폭 확대되고, 상용차의 경우 다목적 차량 수요 증대로 인해 1995년 대비 소폭 증가할 전망
 - 수출은 동구권과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확대 지속과 서유럽 및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세 유지로 1995년 대비 21.5%의 증가세를 보일 전망

1997년 전망

97년 자동차 산업의 내수는 5%대의 성장을 유지하겠으나 수출은 9%대로 증가세가 떨어질 전망

- 1997년 자동차 판매는 1996년 추정치보다 6.8% 증가한 300만여 대에 이를 전망
- 내수 판매는 1996년 전망치보다 5% 증가한 170만여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 대중화의 성숙기 진입과 내수 경기 부양책으로 대체 수요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1996년 대비 6% 증가한 124만 대에 이를 전망
 - 상용차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 다목적 차량의 수요 확대가 예상되나 경기 부진 예상으로 1996년 대비 2.4% 증가한 46만여 대에 이를 전망

- 수출은 크게 둔화되어 1996년 대비 9.3%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
- 승용차 수출은 대만의 WTO 가입 가능성에 따른 對대만 수출 재개, 브라질과의 쿼터 협상 등으로 수요 확대가 예상되나 수출선 다변화가 한계에 이르면서 1996년 대비 8.6% 증가에 그칠 전망
- 상용차 수출은 남미 지역에 대한 수출 재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 성장 지속에 따른 수요 증대로 1996년 대비 15.4% 증가할 전망

(단위: 천 대)

		1995	1996(e)		1997(e)	
				증감률(%)		증감률(%)
내 수	소계	1,556	1,620	4.1	1,701	5.0
	승용	1,132	1,170	3.4	1,240	6.0
	상용	424	450	6.1	461	2.4
수 출	소계	979	1,189	21.5	1,300	9.3
	승용	856	1,059	23.7	1,150	8.6
	상용	122	130	6.6	150	15.4
전체 합계		2,535	2,809	10.8	3,001	6.8

주: 1) 수출에서 KD는 제외

2) 96년 및 97년 전망치(e)는 본 연구원이 작성한 것임

6. 造船

1996년 동향과 전망

97년 상반기중의 조선 수주 부진이 하반기에 약간 개선될 전망

- 상반기의 심각한 수주 부진 현상이 하반기에는 약간 개선될 전망
- 올 상반기중 조선 산업은 엔저 등의 가격 경쟁력 저하와 세계 조선 시장의 부진으로 말미암아 신조선 수주가 1995년 동기 대비 40.8%나 감소한 189만 9천 GT에 머물렀음
- 하반기에는 유조선 발주를 중심으로 수주 물량이

- 약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1995년에 비해 22.9% 감소한 550만 GT 수주에 그칠 전망이다
- 상반기에 대폭 증가된 수출의 증가세는 하반기에 둔화될 전망
 - 상반기에는 각 조선사의 생산 설비 증대로 1995년 동기 대비 77.5% 증가한 34억 달러로 집계됨
 - 하반기에는 수주 잔량 감소에 따른 작업량 조절로 상반기보다는 수출이 감소될 것이지만 96년 전체적으로 보면 1995년에 비해 30.7% 증가한 66억 달러가 예상됨

1997년 전망

97년 조선 수주는 96년부터 늘어나 겠으나 수출은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전망

- 수주는 1996년 보다 16.4% 정도 증가한 640만 GT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됨
- OECD 다자간 조선 협정의 발효로 국내 업체들의 저가 수주 활동에 제약이 예상되어 예전과 같은 700만 GT 이상의 수주는 기대하기 어려움
- 세계 전체 발주량이 1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996년보다는 우리나라의 수주량이 증가할 것임
- 그러나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본과의 수주 경쟁에 있어서 고전이 예상됨
- 수출은 1996년보다는 증가세가 대폭 둔화되어 3.3% 증가에 그칠 전망이며, 금액 기준으로 68.2억 달러가 예상됨
- 1997년도에 생산 및 수출될 물량 중 일부분이 1996년도로 앞당겨 건조될 것이고,
- 그리고 증대된 건조 능력으로 말미암아 수주 잔량 소진이 급속히 이루어져 작업량 조절이 불가피하기 때문임

	1995	1996(e)		1997(e)	
			증감률(%)		증감률(%)
수 주(천 GT)	7,133	5,500	-22.9	6,400	16.4
수 출(억 달러)	50.5	66.0	30.7	68.2	3.3
생 산(천 GT)	5,663	7,547	33.3	7,800	3.4

주: 96년 및 97년 전망치(e)는 본 연구원이 작성한 것임

7. 建設

1996년 동향과 전망

96년 상반기 국내 건설 급신장

- 1996년 상반기 국내 건설은 공공 부문의 조기 발주로 19%대의 급신장을 했음
- 건설 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상반기에 공공 공사를 조기에 집중 발주했음
- 다만, 민간 부문은 사무용 및 주거용 건축 수요 감소로 위축됨

96년 전체로는 95 년보다 성장세가 크게 감소

- 1996년 국내 건설은 1995년 17%대의 성장에 비하여 13.2%로 성장이 크게 둔화
- 민간 부문 9.6%의 저성장을 공공 부문 18.0% 성장으로 떠 받쳤음
- 민간 부문은 경기의 하락세 지속에 따른 건축 수요 축소와 미분양 물량의 해소 부진, 용수 확보 미비에 따른 건축 허가 지연 등 주택 경기의 부진으로 크게 위축됨
- 공공 부문은 토목 부문이 사회간접자본 물량 소진으로 크게 준 반면, 건축 부문은 지자체 실시예 따른 주민 복지 시설 발주 증가로 크게 증가함

1997년 전망

- 1997년 국내 건설은 1996년보다 약간 낮은 12.9%의

97년 국내 건설은
96년보다 성장세
둔화 전망

- 성장으로 76조 5,500억 원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
- 민간 부문은 1996년보다 낮은 8.8% 성장에 머무르는 데에 비해 공공 부문은 1996년보다 높은 18.5% 대에 이를 전망이다
 - 민간 부문의 성장은 둔화세가 지속되나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 부문 건설 투자를 확대해 공공 부문은 성장세를 지속할 것임
 - 민간 부문의 성장 둔화는 경기 하락에 따른 신규 건축 및 토목 수요의 축소가 지속되고, 미분양 물량의 존속으로 주택 경기는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임
 - 공공 부문의 성장 지속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확대, 자자체 주민 복지 건축 물량의 지속적인 증가 때문임
 - 신규 참여 건설 업체의 증가와 97년 공공 부문 시장에 외국 건설업체의 참여로 인하여 경쟁이 치열해져서 국내 건설업체들의 체감 경기는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높음

(단위: 조 원)

		1995	1996(e)		1997(e)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민간수주	소계	35.6	39.0	9.6	42.42	8.8
	건축	32.4	35.6	9.9	38.88	9.2
	토목	3.2	3.4	6.3	3.54	4.1
공공수주	소계	24.4	28.8	18.0	34.13	18.5
	건축	7.0	9.2	31.4	11.35	23.4
	토목	17.4	19.6	12.6	22.78	16.2
총수주액		59.9	67.8	13.2	76.55	12.9

주: 96년 및 97년 전망치(e)는 본 연구원이 작성한 것임

<주요 산업 동향 및 전망>

산업	주요 제품		단위	1995	1996(e) ¹⁾		1997(e) ¹⁾	
					증감률 ²⁾		증감률 ²⁾	
철강	조강	내수	천 톤	37,306	40,141	7.6	42,630	6.2
		수출		9,556	9,919	3.8	10,422	5.1
		생산		36,772	39,714	8.0	43,169	8.7
		수입		10,090	10,346	2.5	9,883	-4.5
석유화학	제품계	내수	천 톤	7,211	7,440	3.2	7,730	3.9
		수출		3,089	3,514	13.8	4,040	15.0
		생산		9,064	9,632	6.3	10,393	7.9
		수입		1,236	1,320	6.8	1,377	4.3
전자	반도체	내수	억 원	89,691	103,234	15.1	113,557	10.0
		수출		221.1	213.5	-3.4	229.1	7.3
		생산		192,133	197,896	3.0	214,717	8.5
		수입		90.7	103.9	14.6	116.8	12.4
기계 ³⁾	공작기계	내수	억 원	18,772	20,320	8.2	21,305	4.8
		수출		3.6	5.5	52.8	7.0	27.3
		생산		8,988	10,340	15.0	11,805	14.2
		수입		16.4	17.7	7.9	18.7	5.5
자동차	승용차	내수	천 대	1,132	1,170	3.4	1,240	6.0
		수출		856	1,059	23.7	1,150	8.6
		소계		1,988	2,229	12.1	2,390	7.2
	상용차	내수		424	450	6.1	461	2.4
		수출		122	130	6.6	150	15.4
판매계	소계	546	580	6.2	611	5.3		
총수주액			2,535	2,809	10.8	3,001	6.8	
조선	신조선	수주	천 GT	7,133	5,500	-22.9	6,400	16.4
		수출		50.5	66.0	30.7	68.2	3.3
		생산		5,663	7,547	33.3	7,800	3.4
건설	민간 수주	건축	조 원	35.6	39.0	9.6	42.42	8.8
		토목		32.4	35.6	9.9	38.88	9.2
		소계		3.2	3.4	6.3	3.54	4.1
	공공 수주	건축		24.4	28.8	18.0	34.13	18.5
		토목		7.0	9.2	31.4	11.35	23.4
		소계		17.4	19.6	12.6	22.78	16.2
	총수주액				59.9	67.8	13.2	76.55

자료: 무역협회, 「수출입통계」, 각호
 전자공업진흥회, 「전자진흥」, 각호
 대한건설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동차통계월보」, 각호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공작기계」, 「통계속보」, 각호
 통계청, 「기계수주통계」, 각호
 한국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 각호

주: 1) 96년 및 97년 전망치(e)는 본 연구원이 작성한 것임
 2) 전년 대비 증감률임
 3) 반도체, 공작기계, 조선 등의 수출입 증가율은 달러 기준임